

내부적 타자

시각, 청각, 미각, 후각, 촉각.
우리는 오감을 가지고 있다. 모든 사람은 사실 일곱 개를 가졌다.
오감 이외에도 통찰과 예견이 있다.
나는 인터넷과 전화 대신 이 능력을 사용한다.
내가 어떤 형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보라, 될 수 있다.

당신은 내 안에 있다.
당신은 내 피부로 뒤덮여 있다.
나는 눈을 뜬다.
내 근육을 느낀다.
나는 입술을 움직인다.

과연 누가 누구를 대표할 권한이 있나.
무엇이 또 다른 무엇을 설명할 정경이라고 여길 수 있나.
너와 나, 나 또는 너, 혹은 우리라고 불리우는, 또는 나 또는 둘 다
이중 감각적 내부적 타자를 구성할 수 있다.
국가적 경계의 내부로
실로 가장 은밀한 경험의 경계에서
그리고 정체성 생성 자체의 지배적 담론을 내면화하여

백두산에서 한라산까지
당신과 내가 닦아낸 긴 길에서.
당신은 군사 경계선의 절반을 무너트린다.
나는 나머지 절반을 무너트릴 것이다.

당신은 해와 달을 보았는가?
네, 봤어요.
하늘의 별들을 보았는가?
보았어요.
아홉 개의 계단을 올라갔는가?
올라갔어요.
장애물을 넘어섰는가?
넘었어요.

여기가 내가 사는 곳이다.
내 뒤를 보라.
내 앞을 보라.
마음으로 보라.

우리는 난다.
큰 바위 위로.
큰 나무 위로.
큰 절벽 위로.
지상의 큰 상처 위로.
갈라진 틈 위로.*

식물이 있다. 그들은 작은 발로 함께 움직이고 있다.
날 죽이지 말아줘.
그들은 그들의 껍데기를 식물의 가죽으로 바꾸는 것을
할 수 있는 두려운 것들이기에

음침한 곳에서 그 것들은
아이들과 여성들을 향해 나아간다
악마는 그의 고통을 감추려고
본래의 모습을 감추려는 것인지 모른다.

이 곳은 생명이 위험한 곳이다.
혼란스러운 곳.
괴로운 곳.
소문난 무성한 곳.
식인귀들이 사는 곳.
모두가 입을 다물고 있는 곳에.

누가 밤에 얼굴을 피한 채 숨어서
몰래 다가갈 수 있나?
형제들은 일렬로 모두 손을 잡고 서있다.
밤 동안 날카로운 보초는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고정되어 몸에 달라붙은 눈.
그리고 결코 방황하지 않는 시선.

우리는 철새였다. 대륙의 해안 주요 하천을 따라
우리는 길을 따라갔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은 유목민이다.
우리 사이에서는
다른 색이 있다. 그들은 난민이다.
그들은 가족을 잃었다.

산신이 내게 왔다.
그는 나에게 무릉도원으로 같이 가자고 제안했다.
함께 내가 그를 데려갈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난 세상에 머물러야 한다고

이중 축의 땅 사이에.
큰 바위 위로.
큰 나무 위로.
큰 절벽 위로.
지상의 큰 상처 위로.
갈라진 틈 위로.
우리는 난다.**